

대한민국 남한 2026. 6. 4. 이 희 영 작가

이 희 영 작가 드림

대한민국 남한

전자우편

ihiyong@naver.com

Svenska Akademien

Postadress

Box 2118

103 13 Stockholm

Besöksadress

Källargränd 4, Gamla Stan, Stockholm

목 적 : 2024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한강 작가가 이희영 작가 작품 전체와  
이희영 작가의 서울대학교 불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남한, 2026. 6. 4.

존경하는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노벨문학상 위원회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이희영이며 한국인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께서는 인류의 화합과 번영을 간절히 바라시며 노벨문학상을 제정하신 노벨 선생님의 위대하고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세계문학과 인류문화 발전을 이끌어 주고 계신 분들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지 누구나 어린 시절부터 노벨문학상 수상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꿈과 희망을 키우며 성장합니다. 저 또한 세계인과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부터 노벨문학상 수상 작품과 프랑스 문학작품에 대해서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읽고 소중하게 간직해왔습니다.

따라서 세계 문학의 지도자이시며,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문학과 문화 선진국의 주인공이신 여러분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이해하실 거라고 확신하고,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전세계 누구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노벨문학상의 명예와 영광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이희영 작가 작품 전체와 이희영 작가의 서울대학교 프랑스 문학 석사 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제가 직접 한국어와 프랑스어로 이 글을 써서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를 비롯한 한강 작가의 작품 전체는, 강릉여자고등학교<sup>1</sup>

---

<sup>1</sup> 강릉여자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gn-girl.gwe.hs.kr>

위치: 강원도 강릉시 용지로 107

전화번호: 033-650-9900

목련문학회와 서울 중앙대학교<sup>2</sup> 문학동인회에서 발행한 작품집에 이희영 작가가 발표한 작품 전체와, 이희영 작가가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하고 매우 뛰어난 두 작가인, 메를로 폰티 관점에서 나탈리 사르트 작가 작품을 연구하여 작성한, 서울대학교<sup>3</sup> 불문학 석사학위 논문 『나탈리 사르트의 '사이세계'와 '자유' 연구 - 『삶과 죽음 사이에서』를 중심으로』(2011)을 철저하게 표절하여 만든 표절 작품입니다.

이희영 작가 작품과 한강 작가 작품을 직접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 한강 작가가 이희영 작가를 표절했다는 사실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강 작가가 이희영 작가 작품을 표절했다는 증거를 엄청나게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강 작가는 이희영 작가 작품 중에서도 특히 『어느 기억들에 관한 이야기』(2012)를 중심으로 표절했기 때문에, 한강 작가 작품 전체는 최소한 2012년 이후에 만든 표절 책으로 판단됩니다.

---

**<sup>2</sup> 중앙대학교**

홈페이지: [www.cau.ac.kr](http://www.cau.ac.kr)

위치: (06974)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전화번호: 02-820-5114

**<sup>3</sup>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www.snu.ac.kr](http://www.snu.ac.kr)

위치: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전화번호: 02-880-5114

한강 작가는 연세대학교<sup>4</sup>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주)샘터사<sup>5</sup>에서 근무했으며, 서울예술대학교<sup>6</sup> 문예 창작 교수(2007~2018)로 십여 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대학교 국문학 학사 출신인 한강 작가가, 불문학 전공자인 이희영 작가 작품과 서울대학교 불문학 석사 학위 논문 전체를 표절하면서, 표절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음대로 발행일자를 10년 이상 과거 날짜로 출판한 책을 판매하고 있으며, 아예 처음부터 번역작가로서 작가 생활을 시작했으며 평생 번역작가로 활동한 것처럼 행세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강 작가의 모습은,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소감에서 생명 파괴와 폭력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한 것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우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

**4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www.yonsei.ac.kr](http://www.yonsei.ac.kr)

위치: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전화번호: 1599 1885

**5 (주)샘터사**

홈페이지: [www.isamtoh.com](http://www.isamtoh.com)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35길 26, 2층

전화번호: 1877 8941

**6 서울예술대학교**

홈페이지: [www.seoularts.ac.kr](http://www.seoularts.ac.kr)

위치: (1526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교 171

전화번호: 031 412 7100

따라서 저는 한강 작가가 이희영 작가 작품 전체와 서울대학교 불문학 석사 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사실을 누구나 쉽게 확인하고, 노벨 선생님께서 인류의 화합과 번영을 바라는 위대하고 숭고한 뜻으로 제정하신, 세계인의 보물, 노벨문학상의 영광과 명예를 지켜드리며, 세계문학과 인류문화 발전에 힘을 보태드리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통해서 한강 작가가 이희영 작가 작품 전체를 표절했다는 사실을 세계 독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노벨문학상을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이와 세계 인류 모두가 더욱 아름답고 멋진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여러분께 이 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노벨문학상 위원회 여러분께 드리는 이 편지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편지는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 글의 I장, II장, III장에서는 한강 작가가 전문적인 표절 수법을 사용하여 이희영 작가 작품 전체와 서울대학교 불문학 석사 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사실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I장에서는 존경하는 여러분께서 직접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희영 작가 작품이 실려 있는 서울 중앙대학교 문학동인회 동문회 작품집 『해암海岩 2012』(중앙대학교 문학동인회 동문회, 2012) 겉표지와 이희영 작가 작품 『어느 기억들에 관한 이야기』(2012)(『해암海岩 2012』, 중앙대학교 문학동인회 동문회, 2012) 원본 일부를 제가 직접 사진 촬영(총 10장)하여 첨부해놓았습니다. 저작권 문제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작품집 일부만 촬영하여 보내드립니다.

이희영 작가는 강릉여자고등학교 목련문학회와 서울 중앙대학교 문학동인회에서 발행한 여러 권의 작품집에, 『어느 기억들에 관한 이야기』(2012), 『겨울 오후』(2005) 등을 비롯한 다양한 글을 발표해왔습니다. 또한 이희영 작가는 서울 중앙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불문학을 전공하면서, 『나탈리 사로트의 '사이세계'와 '자유' 연구 - 『삶과 죽음 사이에서』를 중심으로』(2011) 논문을 쓴 서울대학교 불문학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한국어와 프랑스어, 시와 소설을 결합한 것처럼 자유롭고 시적이며 개성적인 문체를 사용해서 직접 글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샘터사 출판사에서 근무했으며, 서울예술대학교에서 문예 창작 교수(2007~2018)로 십여 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한강 작가가, 강릉여자고등학교 목련문학회와 서울 중앙대학교 문학동인회에서 발행한 작품집에 실려 있는 이희영 작가의 작품 전체와 이희영 작가의 서울대학교 불문학 석사 학위 논문을 철저히 표절하여, 『작별하지 않는다』 등과 같은 자신의 작품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한강 작가는 이희영 작가 작품 『어느 기억들에 관한 이야기』(2012)를 중심으로 표절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 작가가 만들어놓은 표절 작품 전체는, 최소한 2012년 이후에 만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 작가는 표절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음대로 발행일자를 10년 이상 과거의 날짜로 만들어서 출판한 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한강 작가는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문학 전공자인 이희영 작가 작품 전체를 표절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갑자기 처음부터 번역작가로 작가 생활을 시작했으며, 그동안 평생 번역작가로 활동해온 것처럼 행세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에 직접 이희영 작가의 이름을 집

어놓고 이 인물을 잔인하게 살해당한 사람으로 만들어놓는, 전문적인 표절 수법을 사용하여, 이희영 작가를 공개적으로 겁박하면서 표절 사실을 숨기고, 이희영 작가가 앞으로 작가로서 단 한 줄의 글조차 쓸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어서 이 글의 VI장과 V장에서는 이희영 작가 작품 『어느 기억들에 관한 이야기』(2012)를 중심으로 이희영 작가 작품 전체와 한강 작가 작품 『작별하지 않는다』를 직접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한강 작가가 이희영 작가 작품 전체를 표절했다는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와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벨문학상을 제정하신 노벨 선생님의 위대한 뜻을 받들어 인류 모두의 소중한 유산인 노벨문학상의 영광과 명예를 지켜드리고, 세계 인류 문화가 아름답게 꽃피우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며,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과 문학을 사랑하는 세계인 모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이 글에서 참고한 한강 작가 작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강 작가 작품 한국어 원본]**

『작별하지 않는다』, (주)문학동네, 1판 1쇄 2021년 9월 9일, 1판 42쇄 2025년 1월 3일

『소년이 온다』, (주)창비, 초판 1쇄 발행 2014년 5월 19일, 초판 187쇄 발행 2025년 1월 13일

**[한강 작가 작품 프랑스어판]**

Traduit du coréen par Kyungran Choi et Pierre Bisiou, 『*Impossibles adieux*』, Grasset, 2023

Traduit du coréen par Jeong Eun-Jin et Jaques Batilliot, 『*Celui qui revient*』, Le Livre de Poche, 2024

**[한강 작가 작품 영어판]**

Translated E. Yeawon and Paige Aniyah Morris, 『*We do not part*』, Hogarth, 2025

Translated e. Yeawon & Paige Aniyah Morris, 『*We do not part*』, Hamish Hamilton, 2025

Translated by Deborah Smith, 『*Human Acts*』, Hogarth, 2016

Translated by Deborah Smith, 『*Human Acts*』, Granta, 2024

**I. 한강 작가는 매우 전문적인 표절 수법을 사용하여, 이희영 작가 작품 전체와 서울대학교 불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음**

- 『해암海岩 2012』(중앙대학교 문학동인회 동문회, 2012) 겉표지 사진과

『어느 기억들에 관한 이야기』(2012)(『해암海岩 2012』, 중앙대학교 문학동인회 동문회, 2012) 사진 일부 첨부

한강 작가는 2024년 세계에서 가장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으며, 2026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National Book Critics Circle Awards), 2024 에밀 기메 아시아 문학상(Le Prix Émile Guimet de littérature asiatique), 2023 메디치 외국문학상(Le Prix Médicis Étranger), 2018 산클레멘테 문학상(Premio de Letteratura de San Clemente), 2017 말라파르테 문학상(Premio Malaparte), 2016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International Booker Prize) 등을 받았다고 알려지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작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훌륭한 문학, 예술,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프랑스와 스웨덴 등지에서, 한국 작가가 전 세계에서 최고의 명예로운 상을 받았다는 사실은, 분명히 한국인 모두에게 매우 영광스러우며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강 작가의 작품은 이희영 작가의 작품 전체와 서울대학교 불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하여 만든 가짜 작품입니다.

한강 작가는 이희영 작가 작품 전체를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여 가짜 표절 책을 만들었습니다. 한강 작가는 단순히 이희영 작가 작품의 영향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전문적인 표절 수법을 사용하여 이희영 작가의 작품 전체를 철저히 표절했습니다. 한강 작가는 독자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문적인 표절 글쓰기 수법을 사용하여, 이희영 작가 작품 전체와 이희영 작가의 서울대학교 불문학 석사 학위 논문 등 이희영 작가의 모든 것을 한강 작가의 소유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를 비롯한 한강 작가의 작품 전체는, 이희영 작가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매우 훌륭한 두 작가인, 메를로 폰티 관점에서 나탈리 사르트 작품을 연구하여 작성한 서울대학교 불문학 석사학위 논문 『나탈리 사르트의 '사이세계'와 '자유' 연구 - 『삶과 죽음 사이에서』를 중심으로』(2011)와, 『어느 기억들에 관한 이야기』(2012)를 비롯한 『침몰』(1997), 『인터넷을 부유하는 단어들』(2004), 『겨울 오후』(2005), 『너에게로 가는 길』(2011), 『햇살 환한 아침』(2017) 등, 이희영 작가가 강릉여자고등학교 목련문학회와 서울 중앙대학교 문학동인회에서 발행한 작품집에 발표한 작품 전체를 표절하여 만든 표절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강 작가는 이희영 작가 작품 『어느 기억들에 관한 이야기』(2012)를 중심으로 표절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 작가의 표절 작품은 전체적으로 모두 최소한 2012년 이후에 만들어진 글로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 작가는 표절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발행일자를 마음대로 마음대로 10년 이상 과거 날짜로 바꿔놓은 책을 출판하여 판매하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사 출신으로 알려져있는 한강 작가가 불문학 전공자인 이희영 작가의 작품 전체를 표절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갑자기 아예 처음부터 번역작가로 작가 생활을 시작했으며, 그동안 번역작가로 활동해 온 것처럼 행세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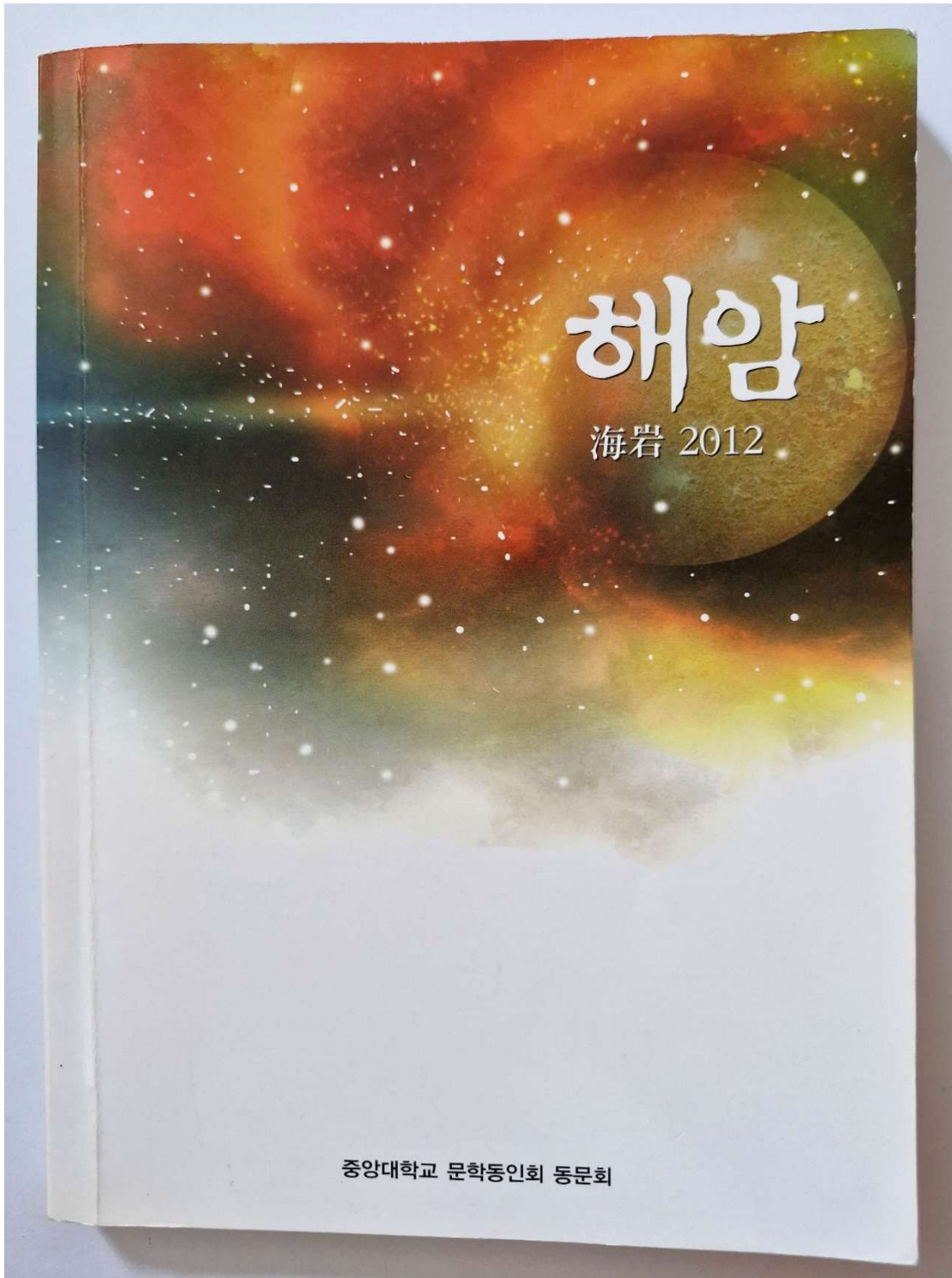
이희영 작가 작품과 한강 작가 작품을 비교 분석해보면, 한강 작가가 이희영 작가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증거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발견됩니다.

십 년 이상 문예 창작학과 대학 교수로 근무(2007-2018)했다고 알려져 있는 한강 작가가 이희영 작가의 작품 전체를 표절했다는 사실은, 대단히 충격적이며 너무나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한강 작가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 상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매우 전문적인 표절 수법을 사용하여, 이희영 작가 작품 전체를 표절해 놓고 앞으로 영원히 이희영 작가가 절대로 작가로서 글을 쓸 수 없도록 만들어놓았으며 겁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희영 작가는 매우 큰 분노와 엄청난 무기력감, 깊은 우울함, 상실감과 좌절감마저 느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노벨문학상 위원회 여러분께 드리는 이 편지에서는, 전세계인이 사랑하는 노벨문학상의 명예와 영광을 지켜드리고, 세계문학과 인류문화 발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어느 기억들에 관한 이야기』(2012)를 비롯한 이희영 작가 작품 전체와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비교 분석하여, 한강 작가가 이희영 작가 작품 전체를 표절했다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증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벨문학상 위원회 여러분께서 직접 참고하실 수 있도록, 서울 중앙대학교 문학동인회 동문회에서 발행한 작품집 『해암海巖 2012』(중앙대학교 문학동인회 동문회, 2012) 겉표지와 이희영 작가 작품 『어느 기억들에 관한 이야기』(2012)(『해암海巖 2012』, 중앙대학교 문학동인회 동문회, 2012) 일부분을 제가 직접 사진 촬영하여 아래에 증거자료(총 10장)로 첨부해드립니다. 저작권 문제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위해 작품집의 일부만 촬영해서 보내드립니다.

『해암海巖 2012』(중앙대학교 문학동인회 동문회, 2012) 앞표지 사진-1



『해암海巖 2012』(중앙대학교 문학동인회 동문회, 2012) 뒷표지 사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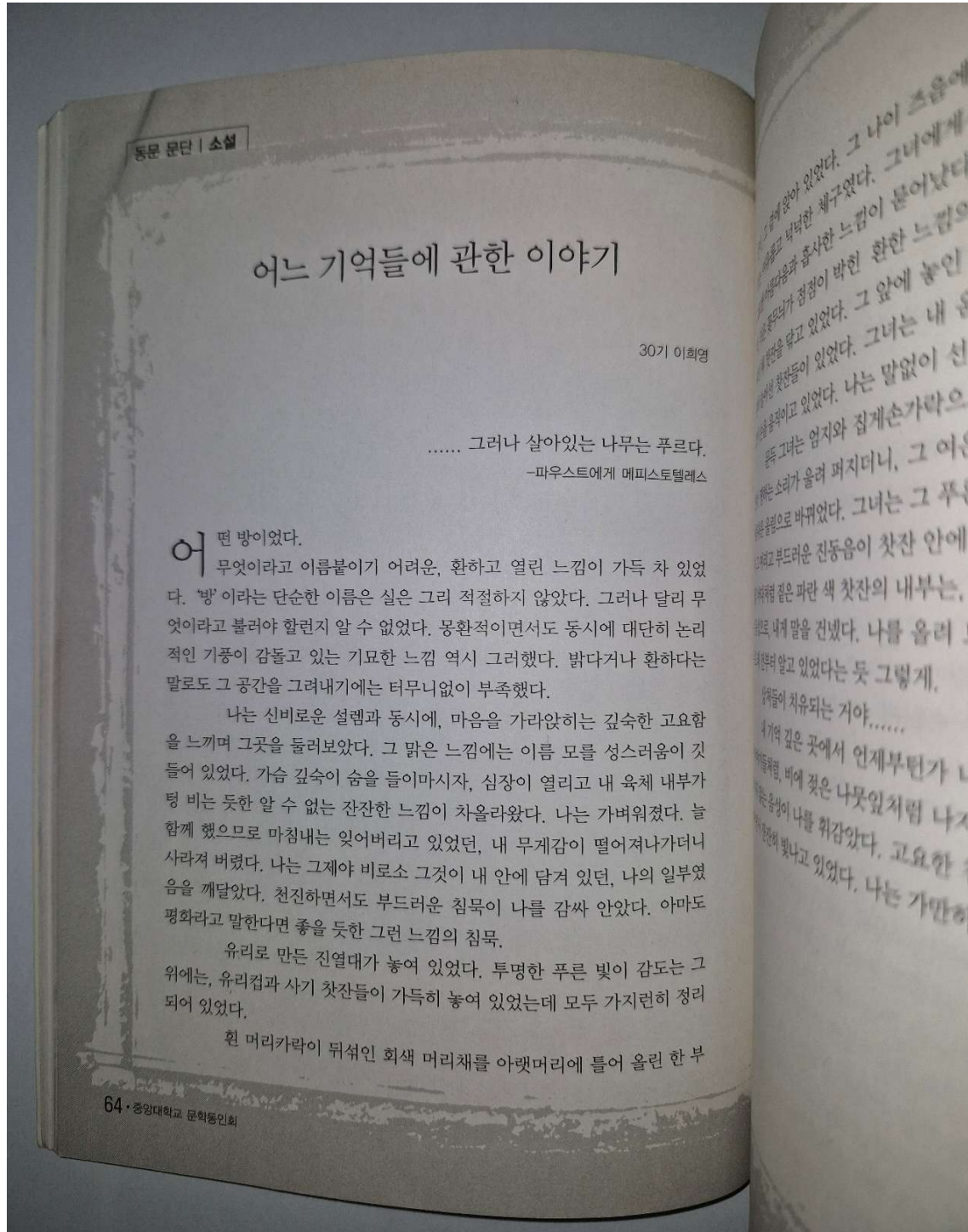


『해암海巖 2012』(중앙대학교 문학동인회 동문회, 2012) 앞표지와 뒷표지 사진-3



『어느 기억들에 관한 이야기』

(『해암海巖 2012』, 중앙대학교 문학동인회 동문회, 64쪽) 원본 사진-1



동문 문단 | 소설

# 어느 기억들에 관한 이야기

30기 이희영

.....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푸르다.  
-파우스트에게 메피스토텔레스

어떤 방이었다.

무엇이라고 이름붙이기 어려운, 환하고 열린 느낌이 가득 차 있었다. '방'이라는 단순한 이름은 실은 그리 적절하지 않았다. 그러나 달리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런지 알 수 없었다. 몽환적이면서도 동시에 대단히 논리적인 기풍이 감돌고 있는 기묘한 느낌 역시 그러했다. 밝다거나 환하다는 말로도 그 공간을 그려내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나는 신비로운 셸럼과 동시에, 마음을 가라앉히는 깊숙한 고요함을 느끼며 그곳을 둘러보았다. 그 맑은 느낌에는 이름 모를 성스러움이 깃들어 있었다. 가슴 깊숙이 숨을 들이마시자, 심장이 열리고 내 육체 내부가 텅 비는 듯한 알 수 없는 잔잔한 느낌이 차올라왔다. 나는 가벼워졌다. 늘 함께 했으므로 마침내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내 무게감이 떨어져나가더니 사라져 버렸다. 나는 그제야 비로소 그것이 내 안에 담겨 있던, 나의 일부였음을 깨달았다. 천진하면서도 부드러운 침묵이 나를 감싸 안았다. 아마도 평화라고 말한다면 좋을 듯한 그런 느낌의 침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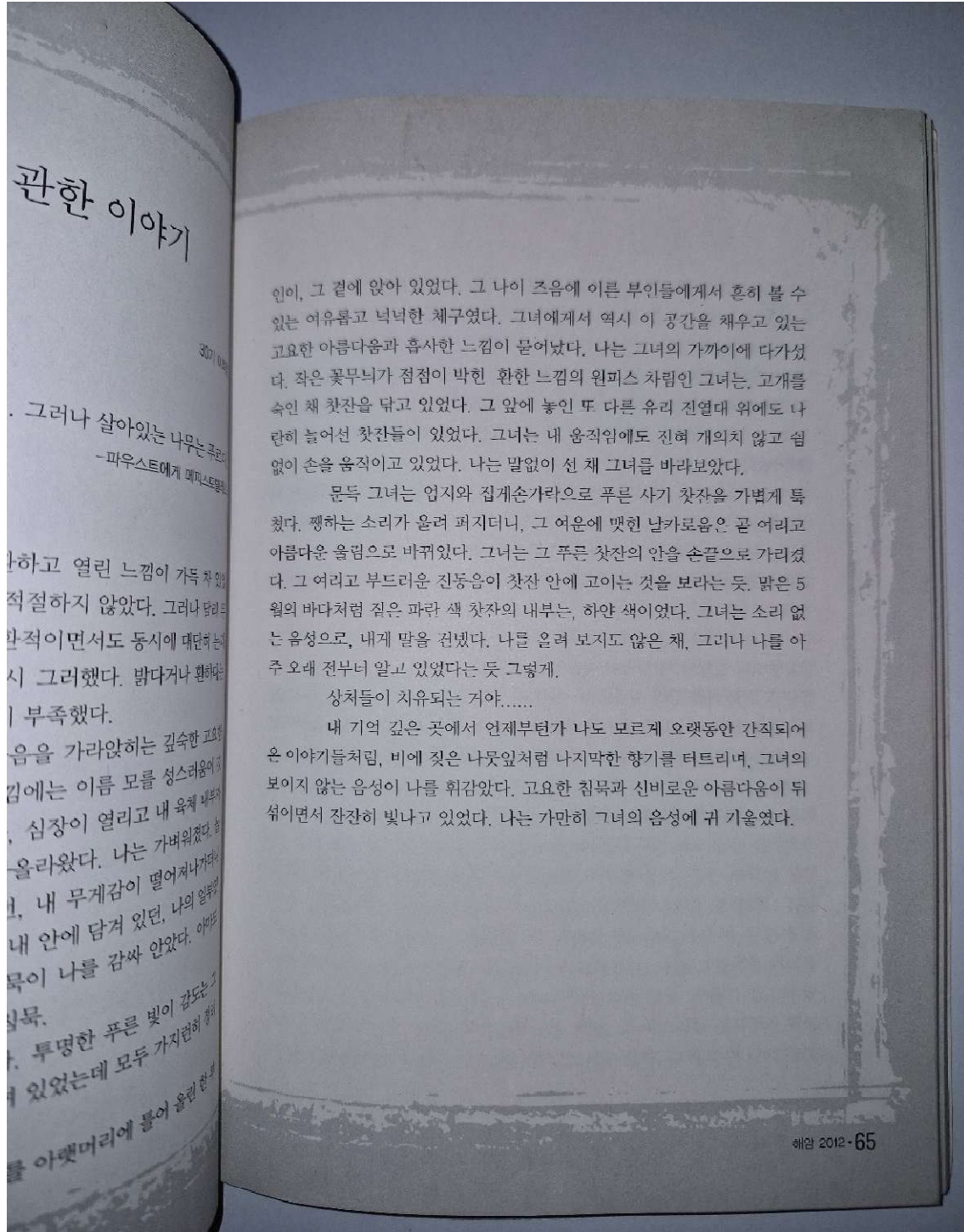
유리로 만든 진열대가 놓여 있었다. 투명한 푸른 빛이 감도는 그 위에는, 유리컵과 사기 찻잔들이 가득히 놓여 있었는데 모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흰 머리카락이 뒤섞인 회색 머리채를 아랫머리에 틀어 올린 한 부

64 • 중앙대학교 문학동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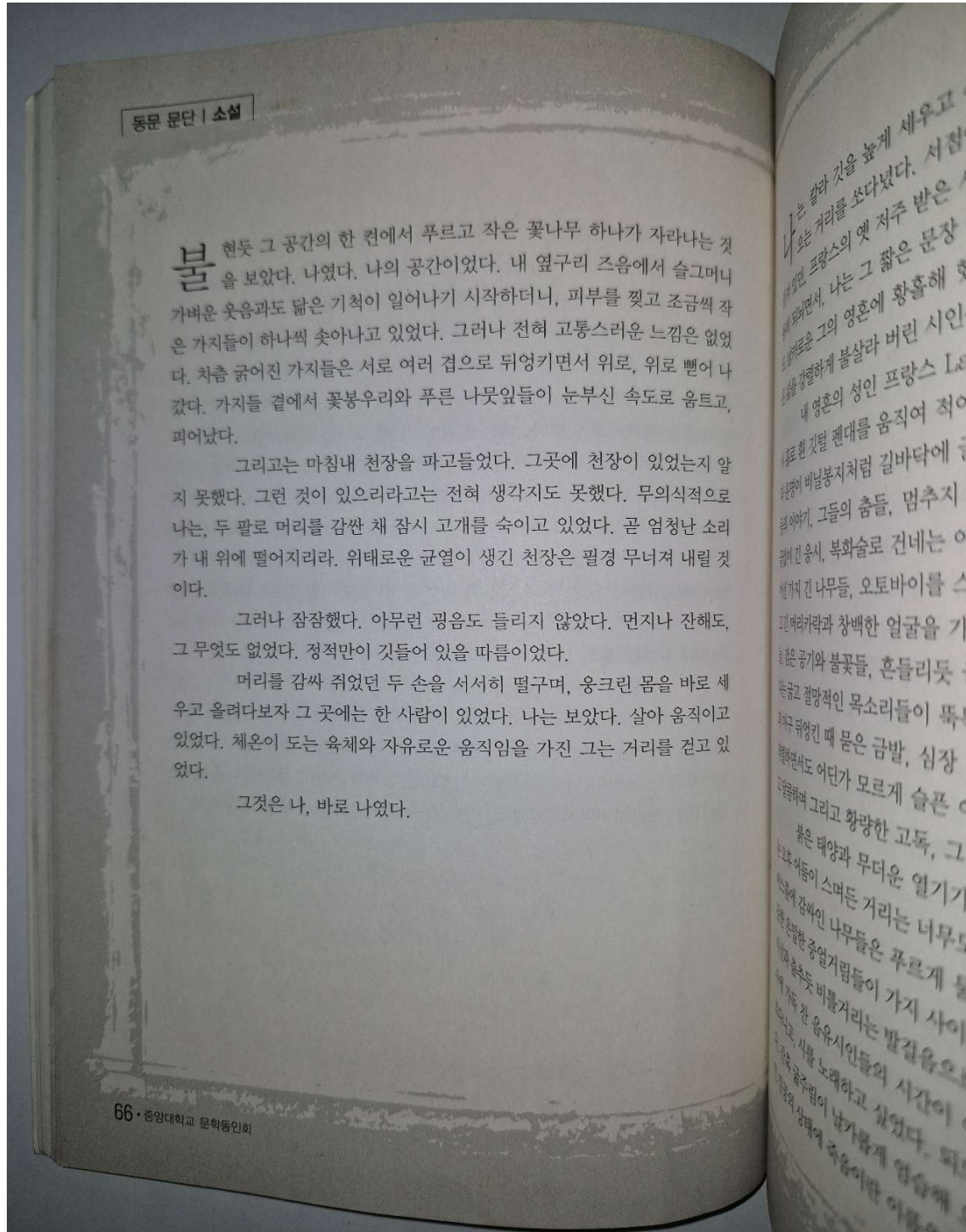
『어느 기억들에 관한 이야기』

(『해암海巖 2012』, 중앙대학교 문학동인회 동문회, 65쪽) 원본 사진-2



『어느 기억들에 관한 이야기』

(『해암海巖 2012』, 중앙대학교 문학동인회 동문회, 66쪽) 원본 사진-3



동문 문단 | 소설

**불** 헛듯 그 공간의 한 칸에서 푸르고 작은 꽃나무 하나가 자라나는 것을 보았다. 나왔다. 나의 공간이었다. 내 옆구리 즈음에서 슬그머니 가벼운 웃음과도 닮은 기척이 일어나기 시작하니, 피부를 찢고 조금씩 작은 가지들이 하나씩 솟아나고 있었다. 그러나 전혀 고통스러운 느낌은 없었다. 차츰 굵어진 가지들은 서로 여러 겹으로 뒤엉키면서 위로, 위로 뻗어 나갔다. 가지들 곁에서 꽃봉우리와 푸른 나뭇잎들이 눈부신 속도로 움트고, 피어났다.

그리고는 마침내 천장을 파고들었다. 그곳에 천장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무의식적으로 나는, 두 팔로 머리를 감싼 채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곧 엄청난 소리가 내 위에 떨어지리라. 위태로운 균열이 생긴 천장은 필경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러나 잠잠했다. 아무런 굉음도 들리지 않았다. 먼지나 잔해도, 그 무엇도 없었다. 정적만이 깃들어 있을 따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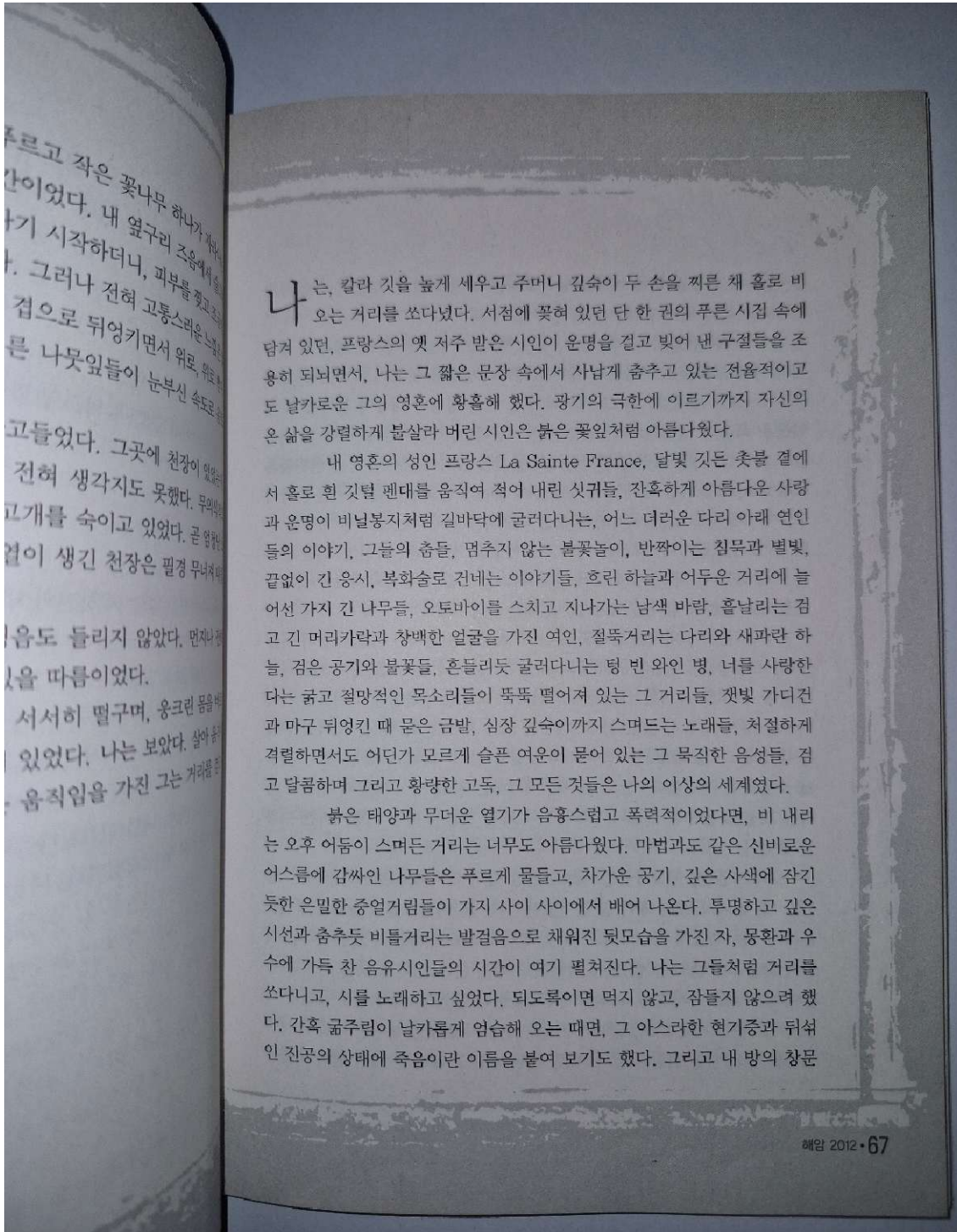
머리를 감싸 쥐었던 두 손을 서서히 떨구며, 웅크린 몸을 바로 세우고 올려다보자 그 곳에는 한 사람이 있었다. 나는 보았다.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체온이 도는 육체와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진 그는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것은 나, 바로 나왔다.

66 · 중앙대학교 문학동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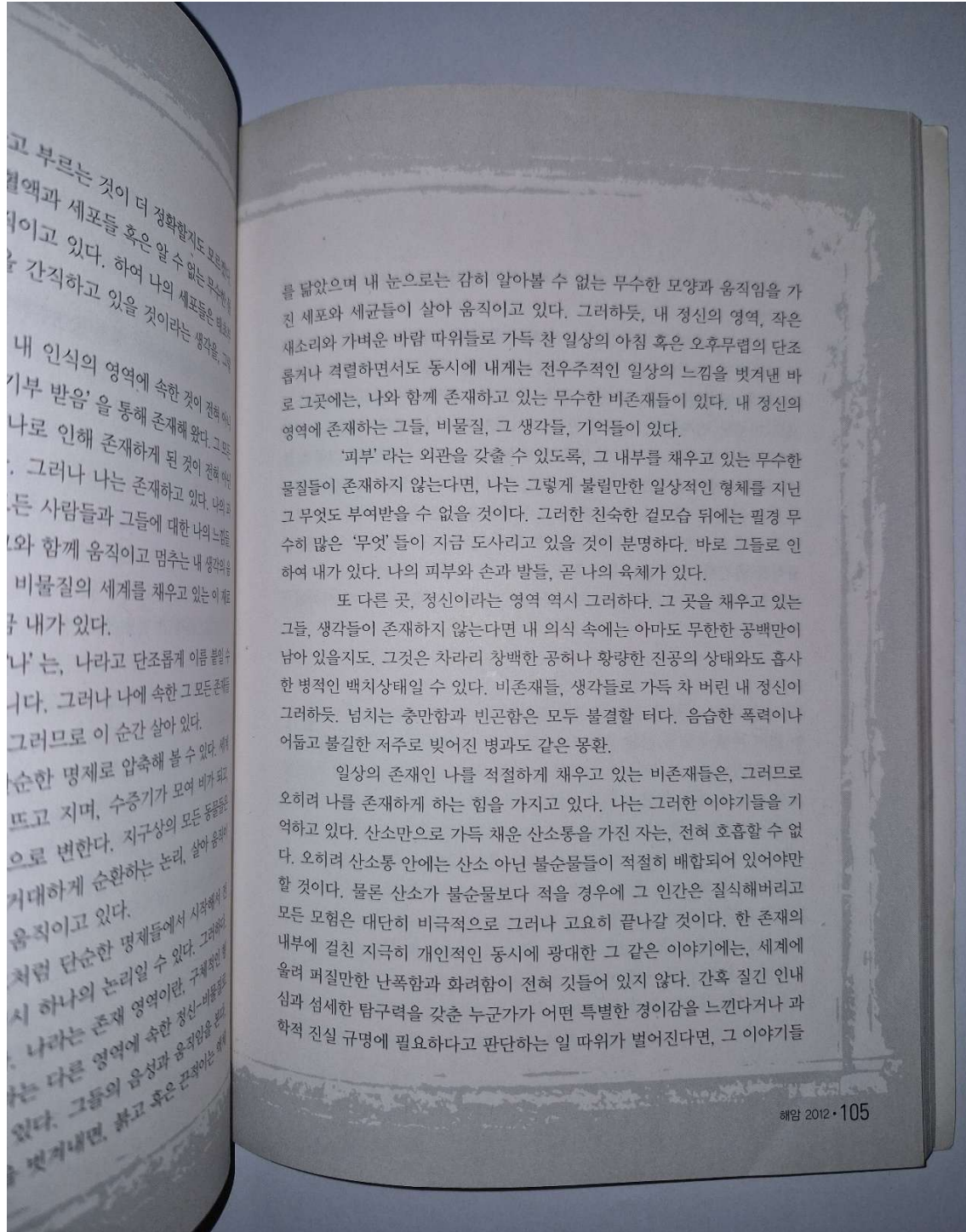
『어느 기억들에 관한 이야기』

(『해암海巖 2012』, 중앙대학교 문학동인회 동문회, 67쪽) 원본 사진-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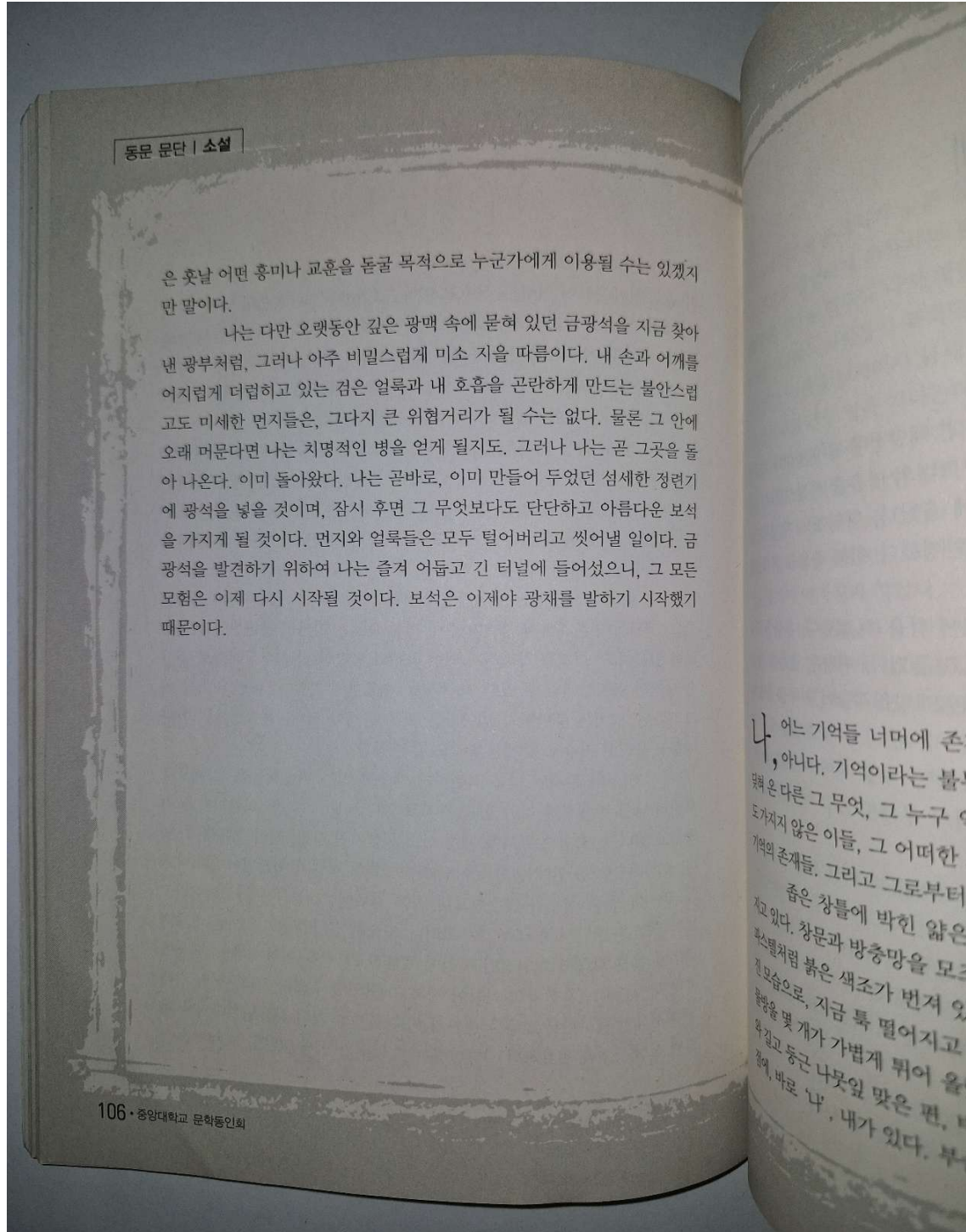
『어느 기억들에 관한 이야기』

(『해암海巖 2012』, 중앙대학교 문학동인회 동문회, 105쪽) 원본 사진-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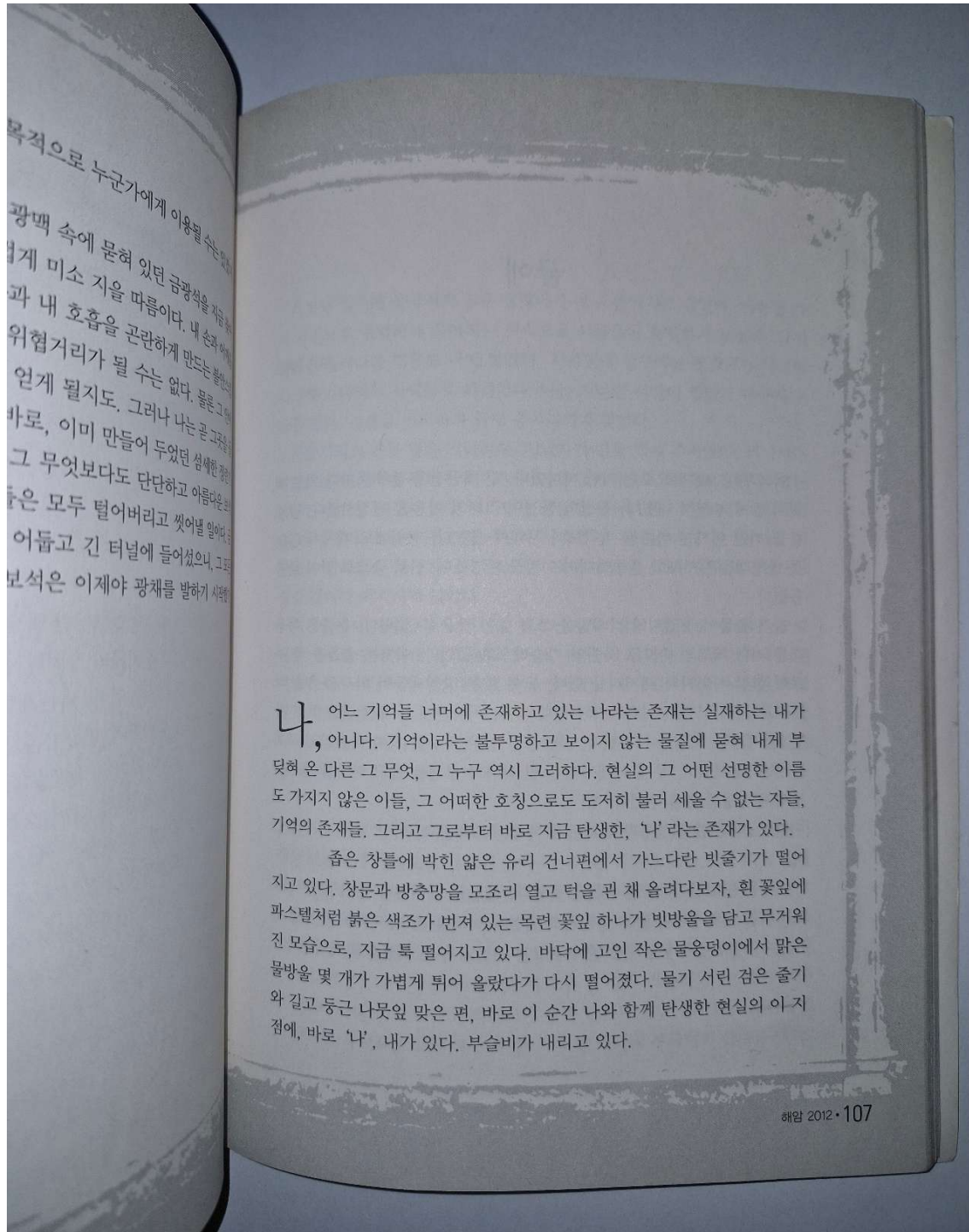
『어느 기억들에 관한 이야기』

(『해암海巖 2012』, 중앙대학교 문학동인회 동문회, 106쪽) 원본 사진-6



『어느 기억들에 관한 이야기』

(『해암海巖 2012』, 중앙대학교 문학동인회 동문회, 107쪽) 원본 사진-7



나, 어느 기억들 너머에 존재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실재하는 내가 아니다. 기억이라는 불투명하고 보이지 않는 물질에 묻혀 내게 부딪혀 온 다른 그 무엇, 그 누구 역시 그러하다. 현실의 그 어떤 선명한 이름도 가지지 않은 이들, 그 어떠한 호칭으로도 도저히 불러 세울 수 없는 자들, 기억의 존재들, 그리고 그로부터 바로 지금 탄생한, '나' 라는 존재가 있다.

좁은 창들에 박힌 얇은 유리 건너편에서 가느다란 빗줄기가 떨어지고 있다. 창문과 방충망을 모조리 열고 턱을 꺾어 올려다보자, 흰 꽃잎에 파스텔처럼 붉은 색조가 번져 있는 목련 꽃잎 하나가 빗방울을 담고 무거운 진 모습으로, 지금 툭 떨어지고 있다. 바닥에 고인 작은 물웅덩이에서 맑은 물방울 몇 개가 가볍게 튀어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다. 물기 서린 검은 줄기와 길고 둥근 나뭇잎 맞은 편, 바로 이 순간 나와 함께 탄생한 현실의 이 지점에, 바로 '나', 내가 있다. 부슬비가 내리고 있다.

## Ⅱ. 이희영 작가는 누구인가?

- 이희영 작가는 서울대학교 불문학 석사학위 소지자이며, 강릉여자고등학교 목련문학회와 서울 중앙대학교 문학동인회에서 발행한 작품집에 다양한 작품을 발표했음
- 한강 작가는 이희영 작가가 문학모임 작품집에 발표한 작품 전체와 서울대학교 불문학 석사학위 논문, 불문학 전공자인 이희영 작가의 자유롭고 시적이며 독창적인 문체까지 이희영 작가의 모든 것을 표절하고 있음

그렇다면 이희영 작가는 과연 누구인가?

존경하는 여러분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한강 작가가 표절한 이희영 작가가 어떠한 인물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벨문학상 위원회 여러분께 저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영 작가, 저의 이름은 이희영이며 한국인입니다. 저는 한강 작가를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조차 없으며, 한강 작가와는 혈연이나 친분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강릉여자고등학교 목련문학회와 서울 중앙대학교 문학동인회에서 발행하는 작품집에 저의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강릉여자고등학교 목련문학회와 서울 중앙대학교 문학동인회에서 발행하는 이 작품집은, 선후배 회원들이 서로 화합하고 우의를 다지며 작품 창작 활동과 문학 모임의 추억을 함께 나누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문학 모임 회원들이 직접 쓴 글을 모아서 출판한 책입니다. 저는 이 작품집에 발표한 여러 가지 작품을 다듬어서, 언젠가 정식으로 발표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서울 중앙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불문학을 전공했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 1908~1961) 관점에서,

대단히 뛰어나고 훌륭한 프랑스 작가 나탈리 사로트(Nathalie Sarraute, 1900~1999)의 작품을 연구하여, 서울대학교 불문학 석사학위 논문 『나탈리 사로트의 '사이세계'와 '자유' 연구 - 『삶과 죽음 사이에서』를 중심으로』(2011)를 썼습니다.

저는 강릉여자고등학교 목련문학회, 서울 중앙대학교 문학동인회 등 문학 모임에서 직접 다양한 작품을 써서 발표하고, 불문학을 전공하면서, 그 결과 자연스럽게 프랑스어와 한국어, 시와 소설을 결합한 형태의 자유롭고 시적이며 개성적인, 저만의 특별한 문체를 사용하여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사를 졸업하고 샘터사 출판사에서 근무했으며, 서울예술대학교에서 문예 창작 교수(2007~2018)로 십여 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있는 한강 작가가, 강릉여자고등학교 목련문학회와 서울 중앙대학교 문학동인회에서 발행한 이 작품집에 실려 있던 이희영 작가의 작품 전체와 이희영 작가의 서울대학교 불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철저히 빈틈없이 표절하여 『작별하지 않는다』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표절 책을 만들어서 자신이 직접 쓴 작품처럼 꾸며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서로 전혀 다른 두 사람의 작가가 동시에 똑같은 글을 쓰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한강 작가가 이희영 작가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표현 외에는, 그 어떤 표현으로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문체는 작가의 지문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서로 다른 지문을 가지고 있듯이, 언어를 다듬어서 예술 작품을 만드는 작가는 누구나 자신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자는 작가가 사용하고 있는 문체만 봐도 어느 작가가 쓴 글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전혀 다른 두 사람의 작가가 마치 한 사람처럼 똑같은 문체를 사용하여 글을 쓴다는 것은, 사실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 서로 다른 두 인물이 똑같은 형태의 글을 썼다면, 이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글을 표절했다는 표현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부조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희영 작가가 한강 작가의 작품을 처음 읽었을 때, 이희영 작가는 도저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큰 고통과 충격을 느꼈습니다. 한강 작가가 마음대로 매우 전문적인 표절 수법을 사용하여 이희영 작가 작품 전체를 한강 작가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희영 작가가 앞으로 다시는 글을 쓸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희영 작가는 엄청난 공포와 충격뿐만 아니라 죽음과도 같은 수준의 엄청난 무기력감과 깊은 절망감까지 느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사 출신으로 널리 알려져있는 한강 작가가 서울대학교 불문학 석사학위 소지자인 이희영 작가 작품 전체를 표절해 놓고, 표절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갑자기 애초부터 번역작가로 작가 생활을 시작했으며 그동안 계속해서 번역작가였던 것처럼 행세하기까지 하고 있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고 놀랍게 보이기만 합니다.

이희영 작가가 직접 손수 여러 가지 작품을 써서 문학 모임 작품집에 발표하고 서울대학교 불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완성하기까지, 갖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한강 작가는 전문적인 표절 글쓰기 수법을 사용하여, 이희영 작가가 오랜 시간 수없이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고 삶을 바쳐 빚어낸 소중한 작품들을 손쉽게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강 작가가 이희영 작가의 모든 것을 표절하여 만들어 낸, 『작별하지 않

는다』 등과 같은 표절 가짜 책은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위대한 작품으로 인류 역사에서 영원히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작품을 쓴 이희영 작가는 불행하게도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혀버리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절대로 작가로서 단 한 줄의 글조차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희영 작가의 모든 것이 영원히 한강 작가의 작품이자 한강 작가의 소유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표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강 작가는 표절가짜 책 『소년이 온다』에 이희영 작가 이름을 집어넣어 살해당한 사람으로 만들어놓고, 공개적으로 현재까지도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강 작가의 모습은 생명 파괴와 폭력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과 함께 하겠다고 말한, 2024 노벨문학상 수상 소감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너무나 큰 충격과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Ⅲ.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에 이희영 작가 이름을 집어넣어 잔인하게 살해당한 사람으로 만들어놓고 이희영 작가를 공개적으로 겁박하고 있음**

**- 『소년이 온다』 한국어 원본과 프랑스어판과 달리, 영어판에서는 이희영 작가 이름을 삭제하고 내용을 수정했음(아래에 해당 부분 원문 인용)**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 뒷부분 에필로그에서, 화자인 '나'가, '희영이 고모'가 집 앞에서 총에 맞아 살해당하는 장면을 상상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희영이 고모'는 이희영 작가와 똑같은 이름으로 만든,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한강 작가와 이희영 작가, 이 두 사람은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에 서로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처럼 한강 작가가 『소년이 온다』에 이희영 작가의 이름을 집어넣어 과거에 잔인하게 살해된 사람으로 만들어놓은 부분은, 한강 작가가 표절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만들어놓은 고도의 전문적인 문학 장치로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식으로 해석됩니다.

먼저, 한강 작가가 표절했다는 사실을 이희영 작가가 발견하더라도 이의제기조차 하지 못하도록 겁박하기 위해, 매우 강한 협박 경고문을 써 놓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강 작가는 막강한 권력을 사용하여 어느 날 갑자기 이희영 작가가 총을 맞게 만들어서, 이희영 작가는 물론 이희영 작가의 자식까지도 죽여 없애버리겠다는 매우 강한 살의殺意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희영 작가는 『소년이 온다』 등 한강 작가의 표절책을 읽을 때, 매우 강한 공포와 극심한 두려움까지도 느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어느 기억들에 관한 이야기』 등 이희영 작가 작품을 이미 알고 있는 독자가, 『작별하지 않는다』, 『소년이 온다』 등 한강 작가가 이희영 작가 작품 전체를 표절하여 만든 작품을 접한 경우, 이 '희영이 고모'라는 문학적인 장치

는, 한강 작가가 이희영 작가와 가족처럼 밀접한 관계라는 믿음과 신뢰를 독자  
에게 심어주면서 한강 작가가 표절했다는 의심을 갖지 않도록 만들어 줍니다. 한강  
작가는 '희영이 고모'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희영 작가가 한강 작가와 매우  
가까운 가족이기 때문에, 한강 작가가 이희영 작가와 똑같은 형태의 글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독자에게 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강 작가는 '희영이 고모'라는 문학적인 장치를 통해서, 이희영  
작가가 갑자기 잔인하게 살해당해서 이 세상에서 아예 없어져 버린 사람으로 묘  
사하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는 이희영 작가가 이미 죽어 없어진 사람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희영 작가 작품 전체를 표절하여 한강 작가가 직접 쓴  
글처럼 만들어놓아도 전혀 아무런 잘못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강 작가는 매우 전문적인 표절 글쓰기 수법을 사용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심지어 이희영 작가 작품 전체와 서울대학교 불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하여 만든 책의 발행일자를 마음대로 10년 이상 과거 날짜로 바꿔서 출판하  
여 판매하는 수법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희영 작가의 작품 전체는 앞으로 영원히 한강 작가가 쓴 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한강 작가는 이희영 작가의 작품 전체와 불문학 석사 학위  
논문을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어놓고, 이희영 작가를 사회적으로나 문학적으로 살  
해하여 다시는 작가로서 단 한 줄의 글도 쓸 수 없도록 매우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반면 한강 작가가 이희영 작가 작품을 표절하여 만들어놓은 『작별하지 않  
는다』, 『소년이 온다』 등 표절 상품을 누군가 사용하려면, 반드시 한강 작가의 동  
의를 받아야만 하며 저작권 사용료까지 지불해야만 합니다. 한강 작가가 이희영  
작가 작품 전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놓고, 영원히 이희영 작가 작품의 저작권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년이 온다』 한국어 원본과 프랑스어판과 달리, 영어판에서는 이희영 작가 이름을 삭제하고 내용을 수정했음(아래에 해당 부분 원문 인용)

한편 한강 작가 작품 『소년이 온다』 한국어 원본, 프랑스어판 『*Celui qui revient*』, 영어판 『*Human Acts*』에서 한강 작가가 이희영 작가의 이름을 집어넣은 부분을 비교해보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어 원본 『소년이 온다』(196~199쪽)과 프랑스어판 『*Celui qui revient*』(233~236쪽)은 내용이 일치하지만, 이와 반대로, Hogarth출판사에서 발생한 영어판 『*Human Acts*』(Hogarth)(194~196쪽)과 Granta출판사에서 발행한 영어판 『*Human Acts*』(Granta)(205~207쪽)는 한국어 원본, 프랑스어판과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한강 작가는 한국어 원본과 프랑스어판과 달리, 영어판 『*Human Acts*』에서는 이희영 작가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전부 삭제하고 내용을 수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소년이 온다』, 창비, 196~199쪽]

그해 추석에 친척들이 모였을 때 어른들은 목소리를 낮춰 대화했다. 마치 아이들이 감시자인 듯이. 우리 남매와 더 어린 사촌들이 못 들도록 가만가만히.

당시 방위산업체에 다니던 막내삼촌과 아버지는 늦도록 안방에서 두런두런 대화했다.

새벽에 급습을 했어. 처음엔 강도가 든 줄 알았어. 부엌 쪽문하고 현관문을 동시에 부수고 들어왔어. 송 선배가 있을 거라고 확신을 했던 모양이야. 그런데 전날 오후에 내가 송 선배를 만났어. 출판사에 찾아가서 전집 인세 사십만원을 이미 달라고 사정해서, 명동에서 잠깐 만나 전해줬더라. ....네 형수하고 나를 분리심문하더라. 나중에 나보고 같이 가자고 하는데, 같이 가면 남산 아니냐. 작년년부터 사이가 멀어졌다고 거짓말을 했다.

전화 도청되는 것 같으니까 조심하세요. 요즘 형님네 전화기에서 바람 소리 같은 게 나던데요. 그게 도청되는 잡음입니다. 제 친구 영준이도 도망 다닙니다. 재작년에 보안부대에 끌려가 열 손톱을 다 뽑혔잖아요. 이번에 잡히면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부엌에서 작은엄마들이 엄마와 함께 음식을 만들며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눴다.

유방을 칼로 갈랐다고.

시상에.....

벧속에서 애기를 꼬집어냈단 말도 있어라.

시상에 뭘 일이단가.....

형님네 살던 집주인이 문간채를 사글셋방으로 내놨는디, 주인집 아들하고 동갑 먹은 애기가 그 방에 살았다고. ㄷ중학교에서만 셋이 죽고 둘이 실종됐는디, 그 집에서만 애들 둘이.....

시상에.....라고 여태 가느다란 탄식처럼 추임새를 넣던 엄마가 고개를 수그리고

침묵했다. 잠시 뒤 목소리를 낮춰 말하기 시작했다.

제작년에 희영 아가씨하고 선뵈던 사람 말이여. 왜, 1중학교 수학 선생 있었잖은가. 사람 괜찮았는데 우리하고는 인연이 안됐제. 그 사람 아내가 이번에 잘못되었다네. 만삭이었다든디, 집 앞에서 남편 기다리다가.

대전에서 온 둘째 작은엄마는 시상에.....라는 추임새를 넣지 않았다. 소 같은 눈을 묵묵히 깜박이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엄마가 차마 말을 잊지 못하는 사이 광주 작은엄마가 이야기를 받았다. 나도 그 얘기 들었어라. 그것이 그 사람이었소?

애기 엄마는 총을 맞고 이미 죽어버렸는데, 뱃속에서 애기는 살아갓고 몇분을.....

희영이 고모가 그 수학 선생님과 결혼했다면, 하고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성립되지 않는 나의 어린 상상 속에서 스물여섯살의 고모는 동그란 배를 안고 대문앞에 서 있었다. 총알이 고모의 이마에 박혔다. 양희은 노래를 성악풍으로 따라 부르는 걸 좋아하는 희영이 고모의 뱃속에서 아기가, 눈을 뜬 아기가 물고기같이 입을 벌리며 꿈틀거렸다.

\*

그 사진집을 아버지가 집으로 가져온 것은 이년 뒤 여름이었다.

누군가를 조문하러 그 도시에 내려갔다가 터미널에서 구했다고 했다. 나의 어린상상과 달리 이마에 총을 맞지도, 아직 결혼을 하지도 않은 희영이 고모가 잠깐 다니러 올라와 있었다. 어른들끼리 사진집을 둘러본 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는 그 책을 아이들이 보지 못하도록 안방의 책장 안쪽에, 책등이 안 보이게 뒤집어 꽂아놓았다.

내가 몰래 그 책을 펼친 것은, 어른들이 언제나처럼 부엌에 모여 앉아 아홉시 뉴스를 보고 있던 밤이었다. 마지막 장까지 책장을 넘겨, 총검으로 깊게 내리그어 으깨어진 여자애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을 기억한다. 거기 있는지도 미처 모르고 있었던 내 안의 연한 부분이 소리 없이 깨어졌다.

[『*Celui qui revient*』, Le Livre de Poche, 233~236쪽]

À Cu'usök de cette année-là, quand la famille s'est trouvée réunie, les adultes parlaient à voix basse. Comme si les enfants avaient été des espions. Tout bas pour éviter que mes frères et mes cousins, encore plus jeunes, et moi ne les entendions.

Mon plus jeune oncle qui travaillait dans une entreprise militaire a discuté jusque tard le soir avec mon père dans la chambre des parents.

— Ils sont débarqué en pleine nuit. J'ai d'abord cru que c'étaient des voleurs! Ils sont entrés en cassant simultanément la porte de la cuisine et celle de l'entrée. Ils croyaient qu'ils allaient découvrir Song chez moi. Je l'avais rencontré la veille dans l'après-midi. J'étais passé chez mon éditeur pour obtenir quatre cent mille wons d'acompte pour l'anthologie et je lui avais donné l'argent au cours d'un bref rendez-vous à Myöngdong... Ils nous ont interrogés séparément, ma femme et moi. Puis ils sont voulu que je les accompagne, mais si j'obtempérais, j'étais bon pour Namsan. Alors j'ai menti, j'ai affirmé qu'on n'était plus très proche depuis l'année dernière.

— Fais attention, j'ai l'impression que ta ligne téléphonique est surveillée. Elle émet un sifflement en ce moment et il paraît que c'est un signe. Mon ami Yöngjun est aussi en cavale. Il a été emmené il y a deux ans aux renseignements militaires où on lui a arraché les dix ongles des mains. S'il se fait prendre à nouveau, il est foutu.

Dans la cuisine, les épouses de mes oncles paternels et ma mère cuisinaient et discutaient à voix basse :

— Il paraît qu'ils lui coupé les seins.

— Mon Dieu!

— J'ai même entendu dire qu'ils avaient sorti le fœtus de son ventre.

— Mon Dieu, ces choses-là sont-elles possibles?

— Les propriétaires actuels de votre ancien logement avaient loué l'annexe à une famille qui avaient un gosse du même âge que leur fils. Cinq élèves du collège T sont morts ou disparus, dont les deux garçons de cette maison...

Ma mère qui ponctuait cette conversation avec des 《Mon Dieu!》 qui ressemblaient à des soupirs est restée silencieuse, tête baissée. Peu après, elle s'est remise à parler en chuchotant :

— Tu vois les gars qu'on avait présenté à Hiyöng il y a deux ans? Le prof de maths du collège K. C'était quelqu'un de bien, mais ça n'avait pas marché entre eux. Il paraît qu'il est arrivé un malheur à sa femme. Elle était enceinte jusqu'aux yeux. Elle attendait son mari devant la maison...

Une de mes tantes, venue de Taejön, attendait la suite sans pousser le sempiternel 《Mon Dieu!》, tout en clignant des yeux qui ressemblaient à ceux d'un veau. Comme ma mère n'osait pas poursuivre, ma tante de Kwangju a pris le relais.

— Moi aussi, j'ai entendu cette histoire. C'était donc lui?

— La bonne femme est morte sous les balles, mais le fœtus a survécu quelque minutes...

Si ma tante paternelle Hiyöng avait épousé ce prof de maths, me suis-je dit à ce moment-là. Dans mon imagination déformante d'enfant, ma tante, alors âgée de vingt-six ans, se trouvait devant le portrait avec son ventre arrondi. Une balle venait s'incruster dans son front. Dans le ventre de cette femme qui aimait chanter de façon lyrique les chansons de Yang Hiün, le bébé remuait les yeux en ouvrant la bouche comme un poisson.

\*

C'est deux ans plus tard, en été, que mon père a apporté cet album de photos

chez nous. Il l'avait trouvé à la gare routière de cette ville, où il était descendu pour un enterrement. Ma tante Hiyŏng, qui, contrairement à ce que j'avais imaginé, n'avait pas reçu de balle ni n'était mariée, était de passage chez nous. Après avoir parcouru ensemble l'album, ils ont gardé un lourd silence. Mon père l'a rangé à l'envers au fond de la bibliothèque de sa chambre, pour empêcher les enfants de mettre la main dessus.

Un soir où les adultes étaient réunis dans la cuisine pour regarder la télé comme d'habitude, j'ai ouvert le volume en cachette. Je me rappelle le moment où j'ai découvert le visage d'une fillette défigurée après avoir été profondément labouré par une baïonnette. En moi, quelque chose de tendre dont j'ignorais l'existence s'est brisé sans faire de bruit.

**[『Humans Acts』, Hogarth, 194~196쪽]**

When our extended family gathered for the thanksgiving festival that autumn, the grown-ups took care to keep their voices down whenever they were talking among themselves. So that my brothers and I, and even our younger cousins, wouldn't overhear anything we weren't supposed to. As though we children were spies.

My father's brother was working in the defense industry at the time, and the two of them whispered together in the main room until the small hours.

"Please, *hyeong*, be careful. I'm pretty sure they've tapped your phone line. These days, whenever I call you I can hear this kind of whooshing sound, that's wiretapping. My friend Yeong-jin—you remember him, right? He's decided to get out of it while he still can. The military police took him the year before last, and pried off every single one of his fingernails. Another round of that would finish him off."

Hushed voices from the kitchen, the younger wives preparing food with my mother.

“The guy who bought your *hanok* was renting the annex out to a couple of kids, the boy was in the same year as the landlord’s son. I heard that there’s three dead and two missing from D middle school alone...including both the kids who were living there.”

My mother merely bowed her head in silence. It took a while before she began to speak, and when she did her voice was so low I could barely make it out.

“There was a young woman...she was waiting for her husband outside their house. Not long before her due date. They shot her in the middle of the head. She died instantly.”

In my impressionable child’s imagination, I saw a woman in her twenties standing in front of our old *hanok*’s main gate, her hands on her round stomach. A bullet hole opened up in the center of her pale forehead. Wide as a surprised eye.

Two summers on, my father brought the photo chapbook home.

He’d been down to Gwangju on a condolence call, and had picked it up at the train station—they were relatively common at the time, though printed in secret and sold unofficially. Once the grown-ups had finished passing around the book, the silence that ensued was heavy as lead. Father put it away in the bookcase, up on the highest shelf so we children wouldn’t accidentally come across it. He even slid it in back-to-front, so that the spine wasn’t visible.

At night, though, when the grown-ups were all sitting in the kitchen and I knew I’d be safe at least until the end of the nine o’clock news, I crept into the main room in search of that book. I scanned every spine until finally I got to the top shelf. I still remember the moment when my gaze fell upon the mutilated face of a young woman, her features slashed through with a bayonet. Soundlessly, and without fuss, some tender thing deep inside me broke. Something that, until then, I hadn’t even realized was there.

[『*Humans Acts*』, Granta, 205~207쪽]

When our extended family gathered for the thanksgiving festival that autumn, the grown-ups took care to keep their voices down whenever they were talking among themselves. So that my brothers and I, and even our younger cousins, wouldn't overhear anything we weren't supposed to. As though we children were spies.

My father's brother was working at the defense industry at the time, and the two of them whispered together in the main room until the small hours.

'Please, *hyeong*, be careful. I'm pretty sure they've tapped your phone line. These days, whenever I call you I can hear this kind of whooshing sound; that's wiretapping. My friend Yeong-jin—you remember him, right? He's decided to get out of it while he still can. The military police took him the year before last, and pried off every single one of his fingernails. Another round of that would finish him off.'

Hushed voices from the kitchen; the younger wives preparing food with my mother.

'The guy who bought your hanok was renting the annex out to a couple of kids; the boy was in the same year as the landlord's son. I heard that there's three dead and two missing from D middle school alone...including both the kids who were living there.'

My mother merely bowed her head in silence. It took a while before she began to speak, and when she did her voice was so low I could barely make it out.

'There was a young woman... She was waiting for her husband outside their house. Not long before her due date. They shot her in the middle of the head. She died instantly.'

In my impressionable child's imagination, I saw a woman in her twenties standing in front of our old hanok's main gate, her hands on her round stomach. A bullet hole opened up in the centre of her pale forehead. Wide as a surprised eye.

Two summers on, my father brought the photo chapbook home.

He'd been down to Gwangju on a condolence call, and had picked it up at the train station — they were relatively common at the time, though printed in secret and sold unofficially. Once the grown-ups had finished passing the book round, the silence that ensued was heavy as lead. Father put it away in the bookcase, up on the highest shelf so we children wouldn't accidentally come across it. He even slid it in back-to-front, so that the spine wasn't visible.

At night, though, when the grown-ups were all sitting in the kitchen and I knew I'd be safe at least until the end of the nine o'clock news, I crept into the main room in search of that book. I scanned every spine until finally I got to the top shelf; I still remember the moment when my gaze fell upon the mutilated face of a young woman, her features slashed through with a bayonet. Soundlessly, and without fuss, some tender thing deep inside me broke. Something that, until then, I hadn't even realized was there.

**IV. 한강 작가는, 『어느 기억들에 관한 이야기』(2012) 등 이희영 작가 작품을 표절하여 한강 작가 작품 『작별하지 않는다』를 만들었음**

이번 장에서는 『어느 기억들에 관한 이야기』(2012) 등을 비롯한 이희영 작가의 한국어 원본 작품 전체와 한강 작가 표절 작품 『작별하지 않는다』 한국어 원본을 아래와 같이 직접 비교 분석하여, 한강 작가가 이희영 작가 작품을 표절했다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어느 기억들에 관한 이야기』(2012)를 비롯한 이희영 작가 작품 전체와 한강 작가 작품 『작별하지 않는다』를 비교 분석해보면, 한강 작가가 이희영 작가 작품을 표절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강 작가가 이희영 작가 작품을 어떻게 표절하고 있는지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 관점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강 작가는 이희영 작가 작품에서 전체적인 내용 전부를 표절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희영 작가 작품 『어느 기억들에 관한 이야기』(2012)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는 프랑스 문학과 영화를 열렬히 사랑하며 내적인 갈등상태임, 내가 본 영화 이야기, 나는 유진과 마리와 친구가 됨, 유진은 청소년 시기에 가출함, 마리가 자신의 집에 가라고 나에게 부탁함, 어느 겨울 손을 다쳐 병원에 입원한 마리가 나에게 연락해서, 나는 병원을 찾아가 마리를 만남, 내가 마리의 집을 찾아가다가 만난 사람들, 나는 마리의 집을 찾아가서, 마리의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줘서 구하려 했으나 구하지 못함, 나는 유진 또는 마리와 음료수를 마심, 마리는 유진에 대한 기억을 나에게 말함, 나는 기억과 나의 존재에 대해 생각함 등.

한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강 작가 작품 『작별하지 않는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는 내적인 갈등상태임(악몽을 꾸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며, 유서를 쓰고 위경련과 두통을 자주 겪고 있음 등), 내가 본 영화(인선이 만든 영화) 이야기, 나는 인선과 친구가 됨, 인선은 청소년 시기에 가출함. 11월 하순 손을 다쳐 병원에 입원한 인선이 나에게 연락해서, 나는 병원에 찾아가 인선을 만남, 인선이 나에게 자신의 집에 가라고 부탁함, 내가 인선의 집을 찾아가다 만난 사람들에게 대한 묘사, 나는 인선의 집에 찾아가서 인선의 반려동물에게 먹을 것을 줘서 구하려 했으나 구하지 못함, 나는 인선과 음료수를 마심, 인선은 자신의 부모님에 대한 기억을 나에게 말함, 나는 기억과 나의 존재에 대해 생각함 등.

이처럼 전체적인 내용만 비교해보아도 한강 작가가 이희영 작가 작품 『어느 기억들에 관한 이야기』(2012)을 똑같이 표절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강 작가는 이희영 작가 작품의 세부 내용을 표절하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는 이희영 작가 작품 『어느 기억들에 관한 이야기』(2012)에서 등장하는 갖가지 세부 내용까지도 철저히 표절하여, 『작별하지 않는다』의 일부분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어느 기억들에 관한 이야기』(2012)에 등장하는 나(화자), 나의 친구 마리와 유진, 마리 배우자의 홀어머니, 마리 배우자의 장례식, 나의 아버지, 마리의 집, 마리의 반려동물, 나는 마리 또는 유진과 만남, 나는 기억과 나의 존재에 생각함 등이, 한강 작가 작품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나(화자), 나의 친구 인선, 인선의 홀어머니, 인선 홀어머니의 장례식, 인선의 아버지, 인선의 집, 인선의 반려동물, 나는 인선과 만남, 나는 기억과 나의 존재에 대해 생각함 등 전부 완벽하게 똑같은 형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 작가는 이희영 작가 작품 『어느 기억들에 관한 이야기』(2012)에서 청소년 시기에 가출한 유진이 경찰을 만났다는 일화를 표절하여,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인선이 열여덟 살 때 가출했다고 만들어놓았고, 인선의 아버지 또한 집을 가출했다가 경찰을 만났다 등 정확하게 똑같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한강 작가는 『어느 기억들에 관한 이야기』(2012)에서, 나는 마리의 집을 찾아가다가 할머니, 남자, 나의 아버지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표절하여,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나는 인선의 집을 찾아가다가 할머니(노인, 인선의 어머니), 남자(버스운전기사, 관광객), 인선의 아버지를 만났다는 이야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 번째, 한강 작가는 이희영 작가 작품 『어느 기억들에 관한 이야기』(2012)에서 기억을 묘사하는, 독창적이고 시적인 표현을 표절하여,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강 작가는, 이희영 작가 작품 『어느 기억들에 관한 이야기』(2012)에서, '내 몸에서 꽃나무가 천장까지 자라났고, 천장 너머에서 과거 기억이 현재 모습처럼 나타난다'는 독창적이고 시적인 표현을 똑같이 표절하여,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거무스름한 형체가 길어지더니 인선이 되어 나와 말을 주고받았다'와 같은 형태 등으로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한강 작가는 『어느 기억들에 관한 이야기』(2012) 뿐만 아니라 이희영 작가의 다른 작품 전체를 표절하여, 『작별하지 않는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한강 작가는, 이희영 작가의 다른 작품인 『21세기 이미지들에 대한 저항』(2011)을 표절하여,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내가 '무더위'로 인해 고통을 겪는 모습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한강 작가는 이희영 작가의 다른 작품 『너에게로 가는 길』(2011)을 표절하여,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내가 인선의 집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밖에도 한강 작가가 『어느 기억들에 관한 이야기』(2012) 외에 이희영 작가의 다른 작품을 표절했다는 증거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한강 작가는 이희영 작가 작품 『겨울 오후』(2005)에서 '겨울 오후 그가 갑자기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말한다, 그래서 나는 그의 말을 듣는다'는 내용을 똑같이 표절하여,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겨울 오후 나는 인선이 갑자기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말한다, 그래서 나는 인선의 말을 듣는다'는 내용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이에 더하여 한강 작가는 이희영 작가 다른 작품인 『침몰』(1997)과 『아미빔 아비님즈』(2014)를 표절

하여,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아미'라는 이름의 앵무새로 만들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한강 작가는 이희영 작가 작품 『어느 기억들에 관한 이야기』(2012)에서 첫 번째 글자만 다른 글자보다 크게 써놓거나 기울임체 문장을 사용하는 등 독특한 표현까지도 똑같이 표절하여, 『작별하지 않는다』 등에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도 한강 작가가 이희영 작가 작품을 표절했다는 증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강 작가가 『어느 기억들에 관한 이야기』(2012) 등 이희영 작가 작품 전체를 표절하여 『작별하지 않는다』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V.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노벨문학상 위원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무한한 감사와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한강 작가가 세계 독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기 바람**

존경하는 노벨문학상 위원회 여러분께 드리는 이 글을 통해서, 『어느 기억들에 관한 이야기』(2012)등 이희영 작가 작품 전체와 한강 작가 작품 『작별하지 않는다』를 직접 비교 분석하면서, 한강 작가가 이희영 작가의 작품 전체를 표절했다는 증거를 분명하게 확인해보았습니다.

한강 작가는, 이희영 작가가 강릉여자고등학교 목련문학회와 서울 중앙대학교 문학동인회에서 발행한 작품집에 발표한 작품 전체와 이희영 작가가 작성한 서울대학교 불문학 석사 학위 논문 『나탈리 사로트의 ‘사이세계’와 ‘자유’ 연구 - 『삶과 죽음 사이에서』를 중심으로』(2011), 특히 한국어와 프랑스어,시와 산문을 결합한 형태의 자유롭고 독창적이며 시적인 이희영 작가만의 문체까지 전부 표절하여, 『작별하지 않는다』 등과 같은 자신의 작품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한강 작가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 상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적인 표절 수법을 사용하여 이희영 작가의 모든 것을 표절했습니다. 그 결과 『어느 기억들에 관한 이야기』(2012)를 중심으로 하여, 『침몰』(1997), 『겨울 오후』(2005), 『나비』(2007), 『너에게로 가는 길』(2011), 『시인의 죽음』(2014), 『한해의 마지막 날이 오면,』(2017) 등 이희영 작가 작품 전체가, 한강 작가의 작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강 작가는 이희영 작가 작품 전체를 표절하여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한강 작가는 이희영 작가가 앞으로 영원히 작가로서 절대로 글을 쓸 수 없도록 만들어놓았습니다.

이에 더하여 한강 작가는, 이희영 작가 작품 전체를 표절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표절하여 만든 책의 발행일자를 10년 이상 과거의 날짜로 마음대로

바뀌어서 출판하여 판매하는 일도 별이고 있습니다. 또한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사 출신으로 알려져있는 한강 작가가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소지자인 이희영 작가가 작품 전체를 표절해 놓고, 갑자기 과거에 처음부터 번역작가로 작가 생활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계속해서 번역작가로 활동해온 것처럼 행세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 작가가 이희영 작가 작품 전체를 표절하여 만들어놓은 책은, 결코 진정한 의미의 언어 예술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계문학발전을 주도하시며 인류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신, 존경하는 노벨문학상 위원회 여러분께서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크게 공감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한강 작가님께서서는 이희영 작가 작품 전체를 표절했다는 사실을, 존경하는 노벨 선생님의 위대하고 숭고한 뜻을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노벨문학상을 아끼고 사랑하는 전세계 독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한강 작가님께서서 표절하셨다는 사실을 전세계 독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으신다면, 앞으로 더욱 심각하고 위험한 사건이 얼마든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벨문학상이 앞으로도 문학을 사랑하는 세계인 모두의 가슴속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꿈과 희망으로 영원히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존경하는 노벨문학상 위원회 여러분께 드리는 이 글을 마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께서 이 글을 읽어주시길 기다리면서, 여러분께 저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남한 2026. 6. 4. 이 희 영 작가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존경하는 여러분께 저의 특별한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희 영 작가 드림